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결식아동 도시락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북구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황금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황금도시락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내 결식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6일까지 진행된다. 황금도시락은 광주 5개구지 적십자봉사원들

이 직접 만든 5만 원 상당의 밀반찬 세트와 '함께할 새누리 지역아동센터'와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49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허정 회장은 "봉사원들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먹고 지역 내 결식위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속·홍보활동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회장 서서연)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관내 학교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담양군,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개 단체가 참여했

며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예방 홍보물품을 전달,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또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 담배 판매행위 금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내용을 안내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104세 할머니 4000m 상공 날았다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네스 등재

미국의 104세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록에 도전했다. (사진) 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도로시 호프너(104)는 전날 시카고 인근 오타와외의 '스카이다이버 시카고 공항'에서 생애 2번째 스카이다이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네스북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네스 세계 기록은 작년 5월 스웨덴의 103세 할머니가 수립한 것으로 남아있다. 호프너 할머니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1만3500피트(약 4115m) 상공으로 올라가서 전문가와 안전띠를 연결하고 뛰어내린 지 약 7분 만에 지상에 안착했다. 그는 점프수트 대신 하늘색 스웨터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사복 차림이었으며 귀마개도 하지 않았으나 손목에 고도계는 착용한 상태였다. 100세 때 생애 처음 스카이다이버에 도전했다는 그는 "당시 전문가에게 떠밀려서 낙하했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뛰어내리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호프너는 축하객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요.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어요"라고 말했다. 기분을 묻자 "너무 좋다.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며 "모든 것이 기쁘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엔 열 기구에 첫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100세 때 재미 삼아 친구를 따라 스카이다이버에 처음 도전했는데 '생애 최고의 경험 중 하나'가 됐다"면서 "하늘에서 부드럽게 떨어오는 기분이 너무 좋다. 누구든 한 번 해볼만 하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플리마켓협동조합, 동구노인복지관에 추석선물 전달



플리마켓협동조합이 추석을 맞아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사진) 지난 2021년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플리마켓협동조합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를 대상으로 아이패드 드로잉 아트클래스를 진행, 시니어들이 그린 드로잉 작품을 엮서, 키링으로 제작해 온·오프라인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경찰청, 재래시장서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관상경찰서, SK텔레콤, 누리잡스와 함께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SK텔레콤의 단말기 점검용 버스를 지원받아 일반시민들의 단말기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

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사이버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책으로 진행됐다. 광주경찰청은 SK텔레콤과 '사이버범죄 예방과 정보통신 기술 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민관관 예방활동 체계를 구축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다이빙/사이클>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살맛나는 오늘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항저우 <양궁/다이빙/핸드볼/스프츠클라이밍>		2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레슬링/배드민턴/다이빙>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동행(재) 55 오늘부터 친해지구(재)		3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다이빙/사이클>	
12	00 KBS 뉴스 12			0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레슬링/배드민턴/다이빙>
1	00 동물극장 단짝(재) 55 한국의 인류유산(재)		0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농구/양궁/다이빙>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0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3		00 여기는 항저우 <배구/농구>		
4			3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농구/양궁/다이빙>	
5				
6	00 6시 내고향		30 MBC 뉴스데스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00 여기는 항저우 <육상/축구>	0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남 준결승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육상/레슬링> 생방송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남자축구>
8	30 일일연속극 우렁탕탕 패밀리			
9	00 KBS 뉴스 9			
10	0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다이빙/배드민턴>			
11	00 KBS 뉴스라인W 30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더 라이브	00 전자적 참견 시점 스페셜	00 7인의 탈출(재)
12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00 더 시즌즈 -악류의 오늘오밤(재)	50 함께 항저우	15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다이노스터(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19:20 고향민국
07:15 뒤죽박죽의 빅포패밀리 쇼츠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19:50 귀하신 몸(재)
17:30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젊은 축제니가 스페인-소도시 로망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나는 섬이다 3부 바위섬 멀치꽃 피었네>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객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09:05 최고다! 호기심까지(재)	17:00 페퍼 피그	22:45 다큐멘터리K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에코의 요수리동요	24:0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4일(음 8월 20일 乙未)

	36년생 제3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48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60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72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수월해지리라. 84년생 당연시 해 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96년생 협조자는 보이나 진행은 지연된다. 행운의 숫자 : 32, 69		42년생 복잡다단한 판세가 계속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54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66년생 상당한 수익이 주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더 할 것이리라. 78년생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여 혼란스럽겠다. 90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될 것이니라. 02년생 수저지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2, 55
	37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뒤떨어질 생각이 있다. 49년생 끝까지 가보지 전에는 중단하지 말라. 61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73년생 장래의 길흉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85년생 조금만 참고 있으면 결정될 경우이니라. 97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3, 80		43년생 예기치 않은 정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5년생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번 낫다. 67년생 기본적인 사항에만 충실하다면 족하다. 79년생 상대의 조언을 가볍게 여긴다면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91년생 전례를 답습한다면 소모적이다. 03년생 관재 구실을 주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3, 76
	38년생 국제사 마음과 같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50년생 별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62년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74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86년생 말은 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98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0, 54		44년생 실행한 후에 밝혀도 되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68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80년생 실의가 없다면 가끔씩 빨리 선회하는 것이 좋다. 92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04년생 동무 따라 갈날 갈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 17, 90
	39년생 기우몽거리다가 바로 서는 위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51년생 가능성은 농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63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맞대응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 75년생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부피가 훨씬 더 크다. 87년생 날발이 실패되어야 할 때이다. 99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15, 65		45년생 일시적인 정황일 뿐이니 과념할 필요는 없다. 57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69년생 가는 것을 붙잡고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81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둘라. 93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05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56
	40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52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이 가득 차 있다. 64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76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 88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라. 00년생 합당한 것만을 찾기는 힘들다. 행운의 숫자 : 34, 75		46년생 능숙하지 못하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라. 46년생 활기차게 추진해도 되는 운세이다. 58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70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82년생 단순하게 보거나 확실히 대하지 말고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 보자. 94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러운 진척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08, 94
	41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53년생 기본에 충실하다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65년생 세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77년생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라. 89년생 의지가 있다 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국면이다. 01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9, 57		35년생 북이 들어오고 있으니 두 눈 똑똑히 뜨고 맞아들이자. 47년생 일관된 유자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59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71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83년생 영욕의 부침이 심하여 그 파장, 또한 광강하다. 95년생 아주 기쁜 일이 생기는 구도이다. 행운의 숫자 : 14, 88